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시 13:1, 새번역)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파푸아뉴기니 산골 마을 우까룸빠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기도편지로 '파푸아뉴기니도 공식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마을을 못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이후 어떤 변화가 몰려올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토요일(21일) 기도편지를 보내고 다음 날인 주일(22일) 오후에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곧바로 그 주 화요일부터 2주간 경비행기를 포함해 모든 국내선 비행기의 운항이 정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23일)에

알로타우 센터 매니저 가족과 함께 우까룸빠 본부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했고,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세상 뉴스에만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저희에게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마을에 다녀온 이후 저희 섬의 비비가니 활주로가 한동안 폐쇄되었습니다. 올 초에 다시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2월에 마을에 가려고 했는데 큰 홍수가 나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이제는 마을에 가나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먹먹한 저희의 마음을 시편 13편 기자가 대변하는 듯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하지만 시편 기자는 절망 가운데 시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저희도 지금의 '비상사태' 덕분에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우까룸빠 공동체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전과 다른 사역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팀은 주위 마을에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열심히 알리고 있고, 항공팀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허락을 받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방송팀은 매일 30분 남짓 인트라넷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며 이웃들을 격려하고 웃음을 줍니다. 예배팀은 오디오로 주일 예배를 진행하는 등 여러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운영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 13:5-6, 개역개정)

있지요. 지난 목요일에는 본부에서 매달 한 번씩 갖는 아침기도 시간을 야외에서 가졌습니다. 야외 공터 5곳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같이 모여 파푸아뉴기니와 세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추가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비상사태를 2달 더 연장했습니다. 6월 초까지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알로타우로, 그리고 마을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하기로 한 구약 파노라마 자문위원 점검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이후 8월의 녹음, 10월의 조판작업과 인쇄 등 올해 계획한 일들 모두를 내려놓고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까요?' 대신 '오늘 어떻게 살까요?'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현재로서는 마을 소식을 접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 비상사태 2주 동안은 배가 안 다녔고, 지금도 화물만 운송이 가능한 상태라 마을 사람들이 알로타우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월에 내린 홍수로 텃밭들이 망가져서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마을에서 요한 1, 2, 3서 초역을 하고 있는 번역자들과, 구약파노라마 앞부분 (창세기-사무엘하)의 최종통독을 하는 카니누와 공동체에게 지혜 주시도록.
- ▶ 호주에 계신 자문위원 선교사님께서 구약파노라마 말씀을 점검하고 관련된 질문을 온라인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잘확인하고 이후 점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초역한 누가복음 13~24장 말씀을 원문과 비교하여 검토할 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발견할 수 있도록. 카니누와로 번역된 '부활절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책을 만드는데 지혜 주시도록. 새로운 일상에 잘 적응하도록.
- 이곳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파푸아뉴기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시편 31:24, 새번역)

믿음의 길에서 혼자가 아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힘이 됩니다. 용기 내어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2020년 4월 25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4316 – 10 St. NE Calgary, AB T2E 6K3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PNG 연락처 휴대전화: (국가번호 675) 7109-5044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카톡 id: kaninuwa2011 PNG 우편 주소: Joseph & Joyce Park c/o SIL Alotau Centre PO Box 30, Alotau, MBP (우편번호) 211 PAPUA NEW GUINEA